

이순신·거북선 관련 민담·설화 등 숨은 이야기 관광상품화

여수는 지금 '이순신 스토리텔링' 한창

市 7일 중간보고회

#선조 31년(1598년) 11월, 여수를 침범해온 왜적들이 돌산을 평산리와 굴전리 사이를 통과 하려다 육로에 가로막혀 막판한 수군에게 전멸 당했다. 이후 사람들은 '무서운 둑'이라고 불렀고 이것이 '무술둔'으로 변했다.

#여수시 선소 뒷산인 망마산에는 등백나무가 있다. 산 꼭대기에서 기마병을 조련하던 이순신 장군이 말채(말채찍)를 심으면서 "이 말채가 죽으면 나 영혼이 죽은 줄 알라"고 했다고 한다. 말채가 자란 것이 망마 산정의 등백나무라는 설화가 전해져 온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지 6년이 지난 선조 36년(1603년) 가을, 장

군 휘하에서 싸웠던 수군들이 돈을 모아 여수 고소대에 높이 1m 남짓의 비를 세웠다. 장군의 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이 비명은 '눈물을 흘린다'라는 비통한 심정을 새긴 '타루(墮淚)비'이다.

여수시가 이순신 장군과 관련한 설화·민담 등을 관광상품으로 부활하는 '스토리 텔링(Story telling)'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토리 텔링'이란 관광홍보의 새로운 트렌드로 단순하고 일방적인 정보 제공이 아니라 숨은 이야기를 찾아내 관광객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미와 감동을 더한 이야기를 말한다.

여수시는 유일무이한 여수만의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 스토리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이야기 산업으로 기본방향을 확정했다.

여수시는 문류·현장조사, 지역 원로와의 인터

뷰,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이순신 장군, 거북선과 관련한 둘째 곳곳에 산재한 보석같은 이야기 소재를 발굴하고 오는 7일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에 나오는 이순신장군에 대한 스토리 텔링은 여수시민의 정신과 정체성을 정립하며 지역 소재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관광자산으로서 이순신장군 유적 순례 코스 개발, 안내 표지판 제작, 관광 콘텐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노철 여수시 관광과장은 "관광에서 스토리 텔링은 노른자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지역이 가진 유·무형의 자원에 생명을 불어 넣어 관광객들의 흥미와 감성을 만족시키겠다"고 말했다.

/여수=박용규기자 ykpark@

구례 '암화대전' 대상에 방순희씨 '쉼'

'야생화의 고장' 구례군이 주최한 '제8회 대한민국 암화대전'에서 '쉼' <사진>을 출품한 방순희(강원도 속초)씨가 종합 대상(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동경부문 대상은 강두남(부산 동래구)씨가 차지했으며 정률 대상은 이상미(경기 안양), 디자인 대상은 김승희(대전 서구), 공예 대상은 김은희(인천)씨가 각각 수상했다.

국제 공모전에서는 '행복한 집'을 출품한 대만 정귀영(鄭桂英)씨가 전라남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이번 암화대전 공모는 국내외 전으로 나눠 풍경·정물·디자인·공예 등 4개 부문에 걸쳐 총 500여점(국내 276점, 일본·대만 등 5개국 220점)이 접수됐다.

달 7일까지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시된다. /구례=이진택기자 lk5826@



마약사범 자수하면 선처

순천지청, 6월말까지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차동언)은 오는 6월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에게는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계획이다.

순천지청은 또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나 중독자는 국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 자수기간은 마약류 투약자들에게 자수의 기회를 부여해 마약류 사용을 단절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돋기 위해 마련됐다.

자수방법은 본인이 순천지청이나 관내 경찰서에 출석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자수의사를 밝히면 되며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등이 대신 신고해도 된다. 문의 국번 없이 1301번, 순천지청(061-729-4468, 4488).

/동부취재부=김은중기자 ejkim@

고흥 도덕면 '찾아가는 경로식당' 호평

고흥군 도덕면(면장 김재윤)이 최근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독거노인 6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제공, 호평을 받았다.

이번 '찾아가는 경로식당'은 교통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면소재지 중앙경로당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노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무료 급식에는 새마을부녀회와 주민들이 안전한 이동과 음식준비 등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김재윤 면장은 "앞으로 '찾아가는 경로식당'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소외된 노인들에게는 성정과 사랑이 담긴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여수·고흥 등 섬마을 5곳 화재진압 장비 보급

전남도내 섬 지역의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수와 고흥 등 5곳 섬마을에 화재진압 장비가 보급된다.

보급 지역은 ▲여수 낭도 예산마을 ▲고흥 시간도 시간마을 ▲완도 넓도 내리마을 ▲영광 송이도 송이마을 ▲신안 증도 우전마을 등이다.

전남도는 5곳을 '재난사고 없는 시범마을'로 선정하고 1천여만원을 들여

여 31곳에 화재시 주민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기함 등 진압장비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주택화재 예방과 초기진압을 위해 200여 가구의 홀로 사는 노인에게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보급하는 등 섬 지역 안전대책도 추진한다.

한편, 작년 전남 섬지역에서는 모두 60건의 화재로 2명이 부상하고 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역 화재는 화재장비 접근이 불가능해 자체 진압을 위한 장비확보가 필요하다"며 "다른 섬지역 마을에도 화재장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전남 섬지역에서는 모두 60건의 화재로 2명이 부상하고 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시골 중학교 입학생들에 3년째 교복 선물

광양 물류업체 로덱스

시골 중학교 입학생들에게 3년째 교복과 체육복을 기증해온 업체가 있어 학교 관계자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2일 광양 태금중학교에 따르면 학교 주변에서 물류업체를 운영하

는 로덱스는 지난 2007년부터 학교 입학생에게 교복과 체육복을 선물해주고 있다.

이 업체는 전교 학생 수가 100명 가량에 불과한 이 시골학교에 지난 2007년 40명, 2008년 30명, 올해 25명의 입학생에게 교복과 체육복을 기증했다.

정대식(39) 로덱스 사장은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교복과 체육복 선물을 해주고 있다"며 "기업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인데 공개적으로 칭찬받는 게 쑥스럽다"고 말했다.

/광양=김준호기자 chkim@

여수,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키로

여수시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교육발전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추진해 교육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수시는 올해 안에 토론회와 여론조사, 시민공청회를 거쳐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연도별 재정투자 및 재원확보 계획을 마련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교육발전 관련조례 제·개정과 시민과 교육인사 등이 참여하는 교육발전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5개년 계획과 별도로 올해 30억원의 교육경비 보조사업비를 일선 학교에 지원하고, 내년에는 교육경비 보조사업비를 올해보다 더 늘려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여수시와 여수광양만관 발전포럼은 지난달 26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시민과 교사, 학교운영위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시 공교육 희망단들기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수=박용규기자 ykpark@

휴켐스 '노사 산업평화' 실천 결의

정밀화학 핵심소재 전문기업인 휴켐스(주) 노사가 노사 산업평화 선언을 하고 글로벌 경영위기 극복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휴켐스는 지난달 31일 여수공장에서 한규원 대표이사와 김재한 노조위원장 등 임직원과 오현섭 여수시장, 유병한 노동부 여수지청장, 김광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하고 올해 임금 동결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휴켐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고薪 타결을 이뤘다.

휴켐스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통해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회사가 당면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초기임금 정밀화학 선두기업으로 국가 경제위기 극복의 선봉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휴켐스는 여수산단에 14개 공장을 보유하고 질산, 초안 등을 생산해 연간 4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중견 기업이다.

/여수=박용규기자 ykpark@

光州日報 전남동부취재본부

(061-908-8111)

순천 여수 광양 고흥 보성 구례

본부장 김동호 국장
주각중 부부장
이진택 부부장
박양규 부부장
김준호 차장
김은중 기자
선상근 기자

부처장 김동호 국장
주각중 부부장
이진택 부부장
박양규 부부장
김준호 차장
김은중 기자
선상근 기자

전무 김동호 국장
주각중 부부장
이진택 부부장
박양규 부부장
김준호 차장
김은중 기자
선상근 기자

부처장 김동호 국장
주각중 부부장
이진택 부부장
박양규 부부장
김준호 차장
김은중 기자
선상근 기자

부처장 김동호 국장
주각중 부부장
이진택 부부장
박양규 부부장
김준호 차장
김은중 기자
선상근 기자

부처장 김동호 국장
주각중 부부장
이진택 부부장
박양규 부부장
김준호 차장
김은중 기자
선상근 기자

부처장 김동호 국장
주각중 부부장
이진택 부부장
박양규 부부장
김준호 차장
김은중 기자
선상근 기자

부처장 김동호 국장
주각중 부부장
이진택 부부장
박양규 부부장
김준호 차장
김은중 기자
선상근 기자

부처장 김동호 국장
주각중 부부장
이진택 부부장
박양규 부부장
김준호 차장
김은중 기자
선상근 기자

부처장 김동호 국장
주각중 부부장
이진택 부부장
박양규 부부장
김준호 차장
김은중 기자
선상근 기자

부처장 김동호 국장
주각중 부부장
이진택 부부장
박양규 부부장
김준호 차장
김은중 기자
선상근 기자

부처장 김동호 국장
주각중 부부장
이진택 부부장
박양규 부부장
김준호 차장
김은중 기자
선상근 기자

부처장 김동호 국장
주각중 부부장
이진택 부부장
박양규 부부장
김준호 차장
김은중 기자
선상근 기자

부처장 김동호 국장
주각중 부부장
이진택 부부장
박양규 부부장
김준호 차장
김은중 기자
선상근 기자

부처장 김동호 국장
주각중 부부장
이진택 부부장
박양규 부부장
김준호 차장
김은중 기자
선상근 기자

부처장 김동호 국장
주각중 부부장
이진택 부부장
박양규 부부장
김준호 차장
김은중 기자
선상근 기자

부처장 김동호 국장
주각중 부부장
이진택 부부장
박양규 부부장
김준호 차장
김은중 기자
선상근 기자

부처장 김동호 국장
주각중 부부장
이진택 부부장
박양규 부부장
김준호 차장
김은중 기자
선상근 기자

부처장 김동호 국장
주각중 부부장
이진택 부부장
박양규 부부장
김준호 차장
김은중 기자
선상근 기자

부처장 김동호 국장
주각중 부부장
이진택 부부장
박양규 부부장
김준호 차장
김은중 기자
선상근 기자

부처장 김동호 국장
주각중 부부장
이진택 부부장
박양규 부부장
김준호 차장
김은중 기자
선상근 기자

부처장 김동호 국장
주각중 부부장
이진택 부부장
박양규 부부장
김준호 차장
김은중 기자
선상근 기자

부처장 김동호 국장
주각중 부부장
이진택 부부장
박양규 부부장
김준호 차장
김은중 기자
선상근 기자

부처장 김동호 국장
주각중 부부장
이진택 부